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응 신념과 태도에의 노출이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와 인종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 돈 진[†]

ORP연구소

김 혜 숙[‡]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적응 관련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후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와 이들이 속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한국인 또는 이주민 대상이 일상에서 보이는 문화적응 신념과 행동을 담은 사진과 글을 담은 4가지 영상(즉,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 혹은 통제조건) 중 하나를 제시한 후,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와 암묵적·명시적 인종 편견을 측정했다. 변량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통합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후 분리주의 신념을 보이는 대상을 접한 경우보다 대상 개인을 더 호의적으로 지각했고, 또한 이주민 집단 일반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태도도 보다 긍정적이었다. 동화주의 태도를 보이는 대상 개인에 대한 평가는 대상 인종에 따라 달랐는데, 한국인 대상의 경우에는 통제조건에서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으나 이주민 대상에 대해서는 통제조건보다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동화주의를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후에 명시적 내집단 편애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참가자들에 있어서만 통합 태도를 취하는 대상을 접한 후 통제 조건에서보다 다문화지원 정책을 더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현실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문화적응신념, 인상평가, 인종태도, 내집단 정체성.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사업(NRF-2009-328-B00088)에 의해 수행된 “다문화시대 한국인과 이주민의 심리적 적응과 삶의 질” 연구 중의 하나임.

† 이 논문의 일부는 김돈진의 2011년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E-mail: hsk@ajou.ac.kr

세계화,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점차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2013)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주민의 총 인구는 142만여명으로 지난 5년동안 25만명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이주민들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직업이 노동자(36%)이고 출신국가는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중국계 한국인 포함)와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이었다. 이들 인구의 급속한 유입은 단일민족·한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를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정부 기관과 대중매체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과학을 비롯한 학계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들 연구들은 주로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문제와 불평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근로조건 및 종교 갈등 등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설동훈, 1992, 1998;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05). 보다 최근에는 한국거주 이주민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김병숙, 안윤정, 송혜령, 2010; 신희천, 최진아, 2010; 안지혜, 강승혜, 2009)와 한국 사람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연구(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노경란, 방희정, 2008, 2009;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2004; 양계민, 2009, 2010;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와 이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황지현,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김혜숙, 2012)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이주민 혹은 한국인이 나타내는 문화적응 신념, 태도 및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또한 어떻게

영향받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문화적응 관련 태도와 신념을 접한 뒤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와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에 있어 인종정체성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이주민들이 나타내는 문화적응 신념, 태도 및 행동이 주류 집단, 즉 한국 사람들에게 대상 개인에 대해 어떠한 인상과 태도를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상과 태도가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로 일반화되는가를 알게 해 준다. 그럼으로써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응 신념과 태도를 취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상호 인종간 인간관계가 보다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지를 알게 해 준다.

다음에 본 연구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화적응 연구들과 사회정체이론에 기반한 범주화 연구들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문화적응(Acculturation), 사회정체와 집단관계

초기 문화적응 연구들은 이민자와 유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임상병리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임상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학습이론, 스트레스 대처이론 및 Berry의 문화적응 이론 등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양계민, 2004; Berry, 2001, 2002; Furnham & Bochner, 1982; Lazarus & Folkman, 1984; Ward, Bochner, & Furnham, 2001). 대표적인 문화적응 이론가인 Berry(2001, 2002)는 그림 1과 같이, 문화적응과 관련된 두 가지 태도 차원, 즉 고유문화 및 정체성 유지와 주류집단과의 관계 추구에 대한 태도의 차원에서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이 채택하는 문화적응 태도나 전략이 다르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주민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을 이루자는 관점이 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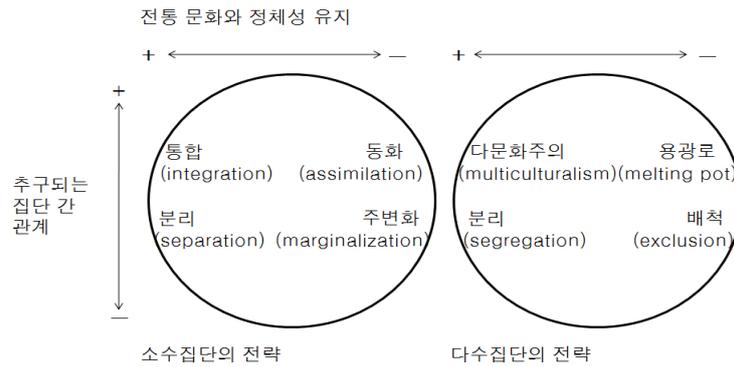


그림 1. Berry의 문화적응 전략: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화주의 신념 또는 통합신념이고, 이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기보다는 주류집단에 순응하고 다수집단으로의 동화·흡수를 강조하는 관점이 동화주의 신념 또는 용광로(melting pot)이다. 분리주의 신념은 주류집단과 이주민집단이 서로 섞이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신념이고, 마지막으로 주변화 혹은 배척 전략은 전통 문화 추구도 주류 문화와의 긍정적 집단 관계도 추구하지 않는 관점이다. Berry의 문화적응 모형을 실제로 적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주민 집단은 다른 문화적응 전략보다 통합 전략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집단의 경우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화주의 신념과 다문화주의 신념을 분리주의 신념이나 배척 전략보다 더욱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Dovidio, Gaertner, Saguy, 2007; Sam & Berry 1995). 이후 연구들은 이주민들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와 더불어 이주를 받아들이는 사회 즉, 주류집단의 문화적응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이들 간의 인식 차이가 집단 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Bourhis, Moise, Perreault, & Senecal, 1997), 특히 이주민들이 취하는 문화적응 전략과 주류집단의 문화적응 전략의 부합(fit)이 집단관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Concord Model of Acculturation; Piontkowski, Rohman, & Florack,

2002). 보다 최근에는 이전의 문화적응 모형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문화적응 전략을 현실적(realistic) 측면과 이상적(ideal) 측면으로 구분하고, 총 7가지 세부 영역(정치, 직업, 경제, 사회, 가족, 종교,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문화적응을 포함한 포괄적 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elative Acculturation Extended Model: Navas, Garcia, Sanchez, Rojas, Pumares, & Rernandez, 2005).

한편, 앞서 언급한 문화적응 관련 신념에 대한 지각 연구들은 대부분 조사연구로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화적응 신념을 측정했는데, 이러한 방식의 태도측정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Van Oudenhoven, Prins와 Buunk(1998)는 사람들에게 이주 맥락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화적응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보다 간접적인 측정방식을 통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한 이주민 구성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소개한 스크립트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Berry의 문화적응 모형에 포함된 네 가지 문화적응 신념(즉, 분리주의 신념, 동화주의 신념, 통합신념 및 주변화 태도)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이는 공통적으로 모로코인 하산(Hassan)이라는 인물이 10년 동안 네덜란드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은 내용을 인터뷰하였다고 한 기술문이었는데, 인터뷰 내용은 주로 이주민 고유 관습이나

문화 유지, 대인관계 및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리주의 신념 스크립트는 하산이 고유 종교인 무슬림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자녀를 고향에 있는 학교로 보냈으며 또한 네덜란드인과는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동화주의 신념과 태도는 하산이 네덜란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네덜란드인과 주로 만나고 국적도 바꾸었으며 자신을 네덜란드인으로 느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화 태도는 하산이 양 문화에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자신을 모로코인으로 네덜란드인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념 스크립트는 하산이 독실한 무슬림이지만 또한 유연하게 행동하여 네덜란드 국적을 가졌으며 네덜란드인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주민의 문화적응 관련 신념이나 행동을 담은 기술문들 중 하나를 네덜란드 주류 집단 및 이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주민 구성원에 대한 인상평가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주민 집단은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이주민 대상을 분리주의, 주변화 전략 혹은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했고, 네덜란드인들은 통합신념 또는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이주민 대상을 분리주의나 주변화 태도를 나타내는 이주민 대상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이주맥락에서 실시한 연구(Maisonneuve & Teste, 2007)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 이들은 가상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방식이, 주류집단이 각 유형의 문화적응 신념을 얼마나 선호하는가 등을 측정할 때 개입하기 쉬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일군의 연구자들은 사회정체이론을 문화적응 상황에 적용시켜 이주맥락에서 소수집단(이민자 집단)과 다수집단(이주를 받아들이는 집단)의 문화적응 관련 신념에 따라 집단지각과 집단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Hwang, Kim, Kim, 2009; Verkuyten, 2005, 2010; Wolsko, Park, Judd, Wittenbrink, 2000). 예를 들어, Verkuyten(2005)은 사회정체이론에 근거하여, 네덜란드의 다수집단(네덜란드인)과 소수집단(터키인)이 가지는 문화적응 관련 이데올로기(동화주의 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가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인종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수집단은 다문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에 덜 동일시하는 한편 소수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고 소수집단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소수집단은 다문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고 자기 집단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동화주의에 동의할수록 자신의 집단에 덜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 조사 자료를 수집한 김혜숙 등(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한국인들은 다문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낮아졌고 반면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한국 사회의 이주맥락에서 문화적응 관련 설득메시지를 제공한 Hwang, Kim과 Kim(2009)이 한국인 주류 집단(대학생 참가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에서도 반복검증 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다문화주의 또는 동화주의 신념과 관련된 설득메시지를 제시하여 한국사회 동남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 설득 메시지를 읽은 한국인 참가자들이 통제조건(즉, 중립적인 글을 읽은 집단)의 참가자들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지원정책에 더욱 동의했고(명시적 태도) 또한 암묵적 내집단 인종편향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주민 집단과 내집단을 동등하게 존중하여 통합하는 다문화주의를 지지하거나 혹은 이주민 집단을 내집단에 동화하도록 하는 신념을 지지하는 것이 집단 상호간의

관계를 변화하도록 하는 효과는 지각자가 내집단에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risp와 Hewstone(2007)은 내집단에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주류 집단 사람들에게 있어 다른 집단을 내집단에 동화 또는 통합하려는 시도는 집단정체성이나 내집단의 긍정적인 독특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되어 기존의 집단편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 집단에 있어 이주민 집단을 주류집단과 통합하거나 동화되도록 하는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효과는 내집단에 자신을 덜 동일시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응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이주맥락에서 한국인이 다양한 문화적응 신념과 태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내집단 동일시 수준에 따라 이러한 지각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목적 및 가설

위에서 기술했듯이, 본 연구는 사회정체이론과 Berry(2001, 2002)의 문화적응 모형에 의거하여, 한국의 이주 맥락에서 이주민 또는 다수집단 구성원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내는 문화적응 신념이나 태도에 접하는 것이 집단 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주민들이 나타내는 문화적응 신념이나 태도 중 어떠한 태도가 한국인들에게 보다 호의적인 대상 지각과 집단인식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국인 또는 동남아시아 이주민 구성원이 나타내는 문화적응 관련 신념과 행동을 포함하는 영상(사진과 이를 설명하는 글)을 제공하여, 이들 개인에 대한 인상 평가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인에 대한 태도가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로 일반

화되는지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도가 지각자의 내집단 동일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되거나 혹은 확대되었다, 즉 기존의 시나리오 조작을 통한 방식을 채택한 연구(Van Oudenhoven 등, 1998)에서는 이주민 교유의 문화 유지에 대한 생각, 대인관계 및 자녀교육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덧붙여 일상에서의 언어사용, 직장동료와의 관계, 전통문화행사 참석, 종교에 대한 정보 및 문화적응과 관련된 인물의 구체적 신념을 제시하여,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실제 맥락과 유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더욱 생생한 정보제공을 위해 사진자극과 대상의 문화적응 신념을 나타내는 기술문을 포함한 영상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대상의 사진과 직업, 나이, 출신국가만을 제시하는 통제조건을 포함하여 문화적응신념 또는 행동을 제시받은 경우와의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대상 개인에 대한 인상 평가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대상의 인종을 한국인 혹은 이주민으로 변화시켜서 그 영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인종태도측정과 더불어 암묵적 인종 편견의 양상도 알아보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참가자들의 내집단 동일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상정하였다.

연구 가설1. 대상에 대한 인상 평가.

참가자들은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동화주의 신념 또는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에 대해 분리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 또는 통제조건(즉,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을 제시하지 않고 직업과 출신국가만을 제시하는 조건)의 경우보다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2. 대상이 속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평가.

연구가설1에서 기술한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는 대상이 속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평가로 일반화될 것이다. 즉, 참가자들은 동화주의 신념 또는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을 접한 후 분리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을 접한 경우 또는 통제조건의 경우보다 그 대상이 속한 인종집단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명시적·암묵적)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3. 지각자의 내집단동일시 수준의 조절효과.

참가자들이 대상의 동화주의 혹은 통합신념을 접한 후 동남아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나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보다 호의적으로 되는 효과는 한국인 집단에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우보다는 보다 약하게 동일시하는 경우에 더욱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개론 및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총 154명이 실험에 참가했다.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의 인종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 3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총 151명(남자 68명, 여자 83명)의 자료를 결과에 반영하였다.

절차

한 실험 회기 당 2명에서 4명의 참가자들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험에 참가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은 한국인 또는 동남아 이주민 남성이 보이는 문화 적응 신념과 행동을 사진과

스크립트로 구성된 4가지 영상(동화주의, 분리주의, 통합신념, 통제조건) 중 하나를 제시받았다. 영상을 보고 나서 참가자들은 암묵적 인종 내집단 편애를(혹은 외집단 편견)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에 응답하였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영상에서 제시된 인물에 대한 인상 평가 및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감정온도), 한국인으로서의 집단동일시(집단 정체성),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및 문화적응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실험자로부터 간단한 사후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실험이 종료되었다.

문화적응 신념과 행동을 담은 영상

실험에 앞서 대상이 일상에서 보이는 문화적응 신념과 행동 조작을 위해 대상의 인종(한국인 혹은 동남아시아인)과 지지하는 문화적응 신념(분리주의, 동화주의 혹은 통합신념)에 따른 총 6개의 영상자료를 제작했다. 각 영상은 공통적으로 대상의 나이와 출신국가, 직업이 제공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신념이나 행동(고유문화의 유지, 직장동료와의 관계, 언어 사용, 전통문화행사 참석, 문화적응에 대한 신념 등)을 나타내는 사진과 스크립트로 구성되었다. 조건별로 총 9~12장의 슬라이드가 스크립트의 길이에 따라 11초~18초로 제공되었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 대상-공동 사항] 로니의 일상, 한국 거주 3년, 이름: 로니, 나이: 29세, 직업: 염색공장 직원, 국적: 방글라데시.

[이주민 대상-분리주의 신념 조건] 로니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한국에 와서도 매일 아침을 이슬람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하루 8시간씩,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방글라데시 친구들을 만나 방글라데시 말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과는 작업장에서만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는 구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방글라데시 말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이주민들도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언어,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니는 한국 사회에서도 방글라데시인으로서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대상-동화주의 신념 조건] 로니는 하루 8시간씩, 염색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이 끝나면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인 친구나 동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방글라데시 동료나 친구들과는 굳이 애써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와 생활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로니는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문화를 고집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빠르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주민 대상-통합신념 조건] 로니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한국에 와서도 매일 아침을 이슬람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하루 8시간씩,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방글라데시 동료 모임에 되도록 참석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한국인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한국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방글라데시인으로서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들이 각각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인 대상-공통 사항] 민규의 일상, 이름: 임민규, 나이: 29세, 직업: 염색공장 직원

[한국인 대상-분리주의 신념 조건] 그는 하루 8시간씩, 염색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남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있지만, 이들과는 주로 작업장에서만 만나고 사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되도록 섞이지 않고, 각각 별도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규는 이주민들과 별도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거주 이주민들도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과 한국인이 각자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인 대상-동화주의 신념 조건] 그는 하루 8시간씩, 염색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이 끝나면 주로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가끔은 이주민 동료들을 만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 사회를 사는 이주민이라면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한국의 생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이주민 동료들도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합니다. 민규는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원래 문화를 고수하기보다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

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사회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인 대상-통합신념 조건] 그는 하루 8시간씩, 검색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가끔은 이주민 동료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 주기도 하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주민 동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지만, 이주민들의 문화나 생활방식에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규는 한국인으로서의 고유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민 문화도 배우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유지하는 한편,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 조화롭고 통합된 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영상과 기술문은 이주민 구성원의 문화 적응 관련 신념, 태도 및 행동과 주류집단 구성원의 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신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먼저 분리주의 신념과 태도를 지지하는 대상은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류집단과는 교류하지 않는 서로 별개의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동화주의 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은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대신해 주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주류집단에 동화·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은 이주민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을 강조했고, 통제 조건은 대상 인물의 사진과 이름, 직업, 출신국가만을 제시했다.

영상으로 제작하기 이전에 각각의 기술문 내

용들이 실제 문화적응 신념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별도의 한국인 대학생 64명(남성: 27명, 여성 36명, 성별기입하지 않음: 1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에게 영상에서 제시될 인물의 사진 1장과 3가지 문화적응 신념을 조작한 스크립트(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 중 하나를 제공하고 각 기술문에 제시된 인물의 태도나 신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이 기술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이주민들의 문화를, 한국인은 한국인의 문화를 따로 유지하는 신념, 태도 및 행동을 나타내는지(분리주의의 신념), 한국사회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는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지(동화주의의 신념), 또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이주민들은 각각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이들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지하는지(통합신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Berry(2002, 2006)의 문화적응 모형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응 관련 2가지 태도 차원('한국 거주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적응을 위해서는 주류집단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과 인물의 태도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도록 했다. 모든 평가는 6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5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해 2(대상인종: 이주민, 한국인)*3(문화적응 신념: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 문화적응 신념의 주효과만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43) > 15.28, p < .001$).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대로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분리주의의 신념을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스크립트를 읽은 사람들이($M = 4.82$) 통합신념($M = 3.88$)이나 동화주의의 신념($M = 2.13$)을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스크립트를 읽은 경우보다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분리주의신념과 더욱 일치한다고 지각했고($F(2, 43) = 18.31, p < .001, \eta^2 = .46$), 또한 동화주의

($M = 5.35$)를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스크립트를 읽은 사람들이 분리주의 신념($M = 2.47$) 또는 통합신념($M = 3.63$)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경우보다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동화주의 신념과 더욱 일치한다고 지각했다($F(2,43)=35.11, p<.001, \eta^2=.62$). 마찬가지로 통합신념($M = 5.66$)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참가자들은 동화주의 신념($M = 3.47$)이나 분리주의 신념($M = 3.00$)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경우보다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통합신념과 더욱 일치한다고 지각했다($F(2,43)=17.44, p<.001, \eta^2=.45$). 이와 더불어, Berry가 제안한 두 가지 차원의 문화적응 관련 태도(전통문화와 정체성 유지, 추구되는 집단 간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 결과,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참가자들은 분리주의($M = 4.71$) 또는 통합신념($M = 4.47$)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참가자들이 동화주의 신념($M = 2.20$)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경우보다 제시된 대상이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각했고($F(2,43)=15.23, p<.001, \eta^2=.42$), 통합신념($M = 4.70$) 또는 동화주의 신념($M = 5.07$)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참가자들이 분리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의 스크립트를 읽은 경우($M = 2.87$)보다 제시된 대상이 주류집단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한다고 평가했다($F(2,43)=20.21, p<.001, \eta^2=.49$). 이러한 결과는 사진자극과 함께 영상에 포함될 스크립트 내용이 실제 문화적응 신념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전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이주민 혹은 한국인의 사진과 함께 사전 조사에서 확인한 문화적응 신념과 태도 및 행동을 나타내는 기술문들을 영상으로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대상 개인에 대한 인상 평가 및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평가(감정온도)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 개인에 대한 인상과 이들이 속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인물에 대해 생각할 때의 느낌을 온도로 나타내도록 했다(0=매우 차갑게 느낌, 99=매우 따뜻하게 느낌).

그 다음 참여자들은 한국인 일반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주민 일반에 대한 감정온도를 평가하였다. 평가시 평가하는 인종의 순서를 변화시켜 참여자의 절반은 한국인을 먼저 평가한 다음 이주민을 평가하였고, 나머지 반은 이주민을 먼저 평가하도록 하였다.

암묵적 인종 편견 측정

한국인 일반과 이주민 일반에 대한 명시적인 집단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황지현 등(2009)이 사용한 한국인 일반에 대비한 동남아시아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측정했다. 긍정적인 속성의 10개 단어(행복, 믿음, 희망, 평화, 미소 등)와 부정적 속성의 10개 단어(실패, 고통, 공포, 거짓, 절망 등)를 한국인 사진 또는 동남아시아 이주민 사진을 연합하여 반응하도록 했다. Greenwald, Nosek, Banaji(2003)이 제안한 개선된 방법을 통해 IAT 효과를 계산했고, IAT과제 순서(조합과제, 비조합과제)는 참가자별로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여 제시했다. IAT 효과 점수(D값)가 높을수록 한국인 일반에 대한 평가에 대비한 동남아시아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와 문화적응 신념

한국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6개 문항(‘정부는 동남아 이주민들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되도록 이주민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합당

하지 않다.’ 등에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했다(황지현 등, 2009). 문항들의 신뢰도는 .7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지원 정책에 더욱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과 관련된 신념에 대한 참여자의 지지 정도는 다문화주의 신념 5문항(‘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 집단이 있을수록 더 좋은 사회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내 다양한 문화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등), 동화주의 신념 2문항(‘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 흡수되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분리주의 신념 1문항(‘한국사회에서 다른 인종집단이 그들의 문화나 전통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인과는 별도로 그들의 것을 유지하면 된다.’) 등 총 8문항에 대해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이는 Verkuyten(2005)과 Berry(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다. 다문화주의 신념과 동화주의 신념을 묻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각각 .61과 .76이었다. 각 점수는 높을수록 각 신념에 더욱 동의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인으로서의 내집단동일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집단자아존중 척도(김혜숙, 1994)의 정체성 집단자아존중 하위 척도 2문항(‘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적 집단자아존중 하위 척도 2문항(‘전반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가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멤버쉽 집단자아존중 하위 척도 4문항(‘나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로운 구성원이

다.’ ‘일반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사회에 별로 공헌한 바가 없다고 느낀다.’ 등)을 발췌한 8문항을 사용했다. 이러한 문항에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요인분석결과, 요인으로 부하되지 않은 사적자아존중 문항을 제외한 6문항이 한 요인으로 부하가 되었다. 따라서 이 6문항의 평균 점수를 내집단동일시 점수로 삼았다. 6문항의 신뢰도는 .77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 집단에 대해 더욱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작확인

영상으로 제시된 대상의 문화적응 신념이나 행동이 실제 문화적응 신념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대상의 인종을 정확히 식별했는지를 묻는 질문(1문항)과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실제 문화적응 신념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가를 묻는 5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 후자의 5개 문항은 위에서 기술한 사전 조사에서의 평가문항들과 동일하였다. 즉,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각각 분리주의, 동화주의 및 통합신념을 어느 정도로 지지하는지를 묻는 3 문항과 또한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에서 제시한 문화적응 태도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6점 척도(1=전혀 일치하지 않는, 6=매우 일치하는)로 평가하도록 했다.

결 과

조작확인

먼저 참가자들이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의 인종을 정확히 식별했는지 확인한 결과, 3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151명의 참가자들이 대상의 인종을 정확히 식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얼마나 문화적응 신념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묻는 5개의 문항에 대한 평가 점수에 대해 각각

2(대상의 인종: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X 3(대상의 문화적 적응 태도: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시된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영상에서 묘사된 인물이 조작과 일치하는 문화적응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각했다. 즉,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분리주의 신념(M = 5.43)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참가자들이 동화주의 신념(M = 1.88)이나 통합신념(M = 3.60)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참가자들보다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분리주의신념과 더욱 일치한다고 지각했고(F(2,107)=78.76, $p < .001$, $\eta^2 = .60$), 동화주의(M = 5.53)를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분리주의 신념(M = 2.20) 또는 통합신념(M = 3.18)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참가자들보다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동화주의 신념과 더욱 일치한다고 지각했다(F(2,108)=91.63, $p < .001$, $\eta^2 = .63$). 마찬가지로 통합신념(M = 5.54)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동화주의 신념(M = 2.60)이나 분리주의 신념(M = 3.38)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경우보다 제시된 대상의 신념이나 행동이 통합신념과 더욱 일

치한다고 지각했다(F(2,108)=59.15, $p < .001$, $\eta^2 = .52$). 이와 더불어, Berry가 제안한 두 가지 차원의 문화적응관련태도(전통문화와 정체성 유지, 추구되는 집단 간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참가자들은 분리주의(M = 5.13) 또는 통합신념(M = 4.90)을 지지하는 대상이 동화주의 신념(M = 2.20)을 지지하는 대상보다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각했고(F(2,108)=111.31, $p < .001$, $\eta^2 = .67$), 통합신념(M = 4.30) 또는 동화주의 신념(M = 5.16)을 지지하는 대상이 분리신념(M = 2.94)을 지지하는 대상보다 주류집단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한다고 평가했다(F(2,108)=34.40, $p < .001$, $\eta^2 = .3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의 문화적 적응 신념이나 행동에 대한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변인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1 주요 변인 상관표

	1	2	3	4	5	6	7	8	9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1								
동남아 집단 감정온도	.395***	1							
한국인 집단 감정온도	.352***	.383***	1						
IAT 효과	-.046	.027	.015	1					
내집단 동일시	.067	-.020	.231**	.108	1				
다문화 정책동의	.166*	.171*	.028	.055	.045	1			
다문화 주의 신념	.192*	.103	.033	-.076	.044	.543***	1		
동화 주의 신념	-.032	.004	.216**	.068	.063	-.433***	-.310***	1	
분리 주의 신념	-.169*	-.025	.081	.015	-.085	-.118	-.053	-.098	1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감정온도는 100점 척도(0-99점)이며, IAT효과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은 모두 6점 척도(1=전혀, 6=매우)상의 점수임
3.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는 긍정적이고 신념에 대해 더욱 지지하는 것을 의미함.

우선 대상 개인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와 한국인에 대한 감정온도 및 동남아 이주민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명시적 인종집단에 대한 태도와 암묵적 내집단 편향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문화적응 관련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참가자의 동화주의 신념지지가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약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결과를 제외하고는 문화적응 신념에 대한 지지와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참가자가 다문화주의를 지지할수록 다문화 지원 정책을 지지하였고,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다문화지원 정책에

덜 동의하였다.

대상에 대한 인상 평가(감정온도)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에 대한 인상 평가가 대상의 인종과 대상이 지지하는 문화적응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에 대해 2(대상의 인종: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X 4(대상의 문화적응 태도: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 및 태도 조건, 통제조건)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후검증으로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최소유의차 비교법)를 통한 중다 비교를 실시했다. 표 2에 본 실험의 주요

표 2. 대상 인종과 문화적응 태도에 따른 인상평가, 다문화지원정책동의 및 문화적응 신념에 있어서의 평가 평균 (표준편차)

변인	평 균								F (유의미)	p
	동남아시아인 대상				한국인 대상					
	분리	동화	통합	통제	분리	동화	통합	통제		
감정온도(개인)	52.37a	60.26a	77.00b	72.05b	34.25a	61.94b	75.83c	42.78a	인종 19.78	***
	(3.73)	(3.73)	(3.63)	(3.73)	(3.63)	(3.85)	(3.83)	(3.82)	문화적응태도 27.16	***
									이원상호작용 7.60	***
동남아인 감정온도	55.00	61.05	61.00	62.63	54.50	64.44	64.72	58.33	문화적응태도 322	*
	(3.12)	(3.12)	(3.04)	(3.12)	(3.04)	(3.20)	(3.20)	(3.20)		
한국인 감정온도	63.68	71.32	69.50	67.37	61.00	69.17	64.17	58.61	인종 4.36	*
	(3.17)	(3.17)	(3.09)	(3.17)	(3.09)	(3.25)	(3.25)	(3.25)	문화적응태도 2.78	*
다문화정책동의	4.28	4.14	4.48	4.33	4.49	4.29	4.31	4.50	인종 3.29	+
	(0.48)	(0.60)	(0.55)	(0.53)	(0.66)	(0.65)	(0.64)	(0.35)	문화적응태도 2.14	+
다문화주의 신념	4.19	4.14	4.61	4.25	4.41	4.24	4.41	4.42	n.s.	
	(0.55)	(0.63)	(0.51)	(0.59)	(0.57)	(0.50)	(0.70)	(0.61)		
동화주의 신념	3.84	3.76	3.48	3.87	3.38	3.53	3.56	3.14	인종 4.16	*
	(0.76)	(0.98)	(1.09)	(0.90)	(1.12)	(0.74)	(1.06)	(0.98)		
분리주의 신념	4.40	3.37	4.00	3.63	4.35	3.67	3.94	3.89	n.s.	
	(1.00)	(1.33)	(1.12)	(1.30)	(0.88)	(1.14)	(1.26)	(0.96)		

주 1. +*p*<.10, **p*<.05, ***p*<.01, ****p*<.001

2. 감정온도는 100점 척도(0-99점)이며, 나머지 측정은 모두 6점 척도(1=전혀, 6=매우)상의 점수임

3. 두 평균이 동일한 알파벳을 포함하면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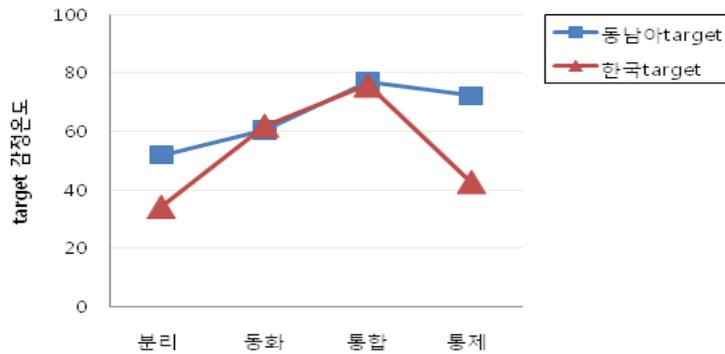


그림 2.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에 있어 대상 인종과 문화적응 태도의 이원상호작용효과

종속측정의 평균과 변량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에서 대상 인종의 주효과($F(1,143)=19.78, p<.001, \eta^2=.12$), 문화적응태도의 주효과($F(3,143)=27.16, p<.001, \eta^2=.36$) 및 대상 인종과 문화적응태도의 이원상호작용효과($F(3,143)=7.60, p<.001, \eta^2=.14$)가 유의미했다. 즉, 한국인 참가자들은 동남아시아 이주민대상($M = 65.40$)을 한국인 대상($M = 53.73$)보다 더욱 따뜻하다고 느꼈으며,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M = 76.45$)을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M = 61.08$), 통제조건($M = 57.81$) 그리고 분리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M = 43.08$)보다 더욱 따뜻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주효과들은 이원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이 동남아시아 이주민인 경우, 분리주의 신념($M = 52.37$)과 동화주의 신념($M = 60.26$)을 지지하는 대상을 통제조건($M = 72.05$)과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M = 77.00$)에 대해서보다 덜 호의적으로 느꼈으며($F(3,143)=10.11, p<.001$), 한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분리주의신념을 지지하는 대상($M = 34.25$)과 통제조건 대상($M = 42.78$)을 동화주의 신념($M = 61.94$)과 통합신념($M = 75.83$)을 지지하는 대상보다 덜 호의적으로 평가했다($F(3,143)=19.19, p<.001$).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대학생 참가자들은 대

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을 분리주의 신념 또는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의 경우나 통제조건 대상보다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 지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문화적응 신념의 효과는 영상에서 제시된 인물의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참가자들은 동화주의 신념을 나타내는 동남아인 대상에 대해 분리주의 신념을 가지는 동남아인 대상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로 덜 좋아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가설1과 일치하게 그가 통합신념 또는 동화주의 신념을 나타내는 경우, 분리주의 신념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통제조건 대상에 비해 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인종 집단(동남아시아 이주민집단 일반, 한국인 일반)에 대한 태도(감정온도)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평가(즉, 감정온도)가 대상 인종과 문화적응 태도, 집단 평가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남아 이주민 일반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 일반에 대한 태도 각각에 대한 2(대상의 인종: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X 4(대상의 문화적응태도: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 통제 조건) X 2(집단평가순서: 동남아인 먼저, 한국인 먼저)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문화적응 태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LSD 다중비교를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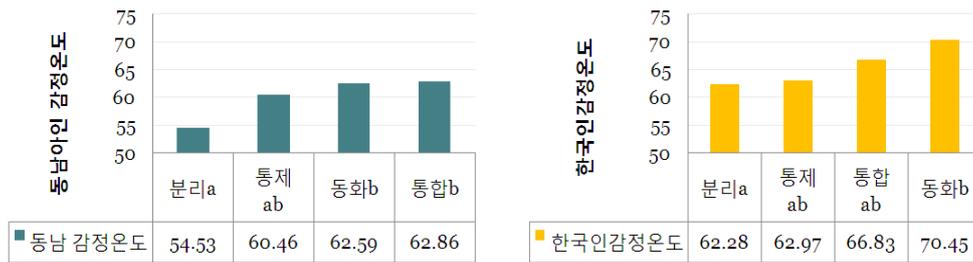


그림 3. 동남아시아 이주민과 한국인 일반에 대한 감정온도에 있어 문화적응 태도의 주효과
(두 평균이 동일한 알파벳을 포함하면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시켰다.

동남아시아 이주민 일반에 대한 감정온도에 대한 삼원변량분석 결과, 집단평가순서($F(1,135) = 5.16, p < .05, \eta^2 = .04$)와 대상의 문화적응 태도 각각의 주효과($F(3,135) = 3.22, p < .05, \eta^2 = .07$)가 유의미했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을 먼저 평가했을 때($M = 62.59$) 동남아시아인을 먼저 평가한 경우($M = 57.63$)보다 동남아시아 이주민을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통합신념($M = 62.86$)이나 동화주의 신념($M = 62.59$)에 노출되었을 때, 분리주의 신념($M = 54.53$)을 지지하는 경우보다 동남아시아인 일반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느꼈다(그림 3 왼쪽). 한국인 일반에 대한 감정온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일반에 대한 감정온도에 있어 대상인종의 주효과($F(1,135) = 4.36, p < .05, \eta^2 = .03$)와 대상의 문화적응 태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다($F(3,135) = 2.78, p < .05, \eta^2 = .06$). 참가자들은 동남아인 대상($M = 67.99$)을 접했을 때 한국인 대상($M = 63.18$)을 접했을 때보다 한국인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

했고, 동화주의 신념($M = 70.45$)에 노출되었을 때, 분리주의 신념($M = 62.28$)에 노출된 경우보다 한국인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 3 오른쪽).

한편, 감정온도에 있어서의 내집단 편애(즉, 한국인 감정온도-동남아 이주민 감정온도)를 표 3에 조건별로 나타내었다.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F(3,147) = 705.68, p > .10$). 각 조건별 점수에 대해 0으로부터의 유의미성을 검토한 결과, 동화 조건($t(36) = 3.25, p < .01$)과 분리 조건($t(38) = 7.56, p < .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대상이 통합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통제조건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주민 대상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거나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태도와 신념을 보일 때와, 혹은 이주민이 자신의 원래 문화만 고수하거나 한국인이 이주민을 따로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에 노출된 경우에는 유의미한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참가자들은 통합신념이나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되었을 때 분리주의 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에 노출된 경우보다 동남아 이주민 집단을 더욱 호의적으로 지각했고, 또한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되었을 때 분리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경우보다 한국인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설 2 일부지지). 즉, 참가자들은 대상의 인

표 3. 명시적 내집단 편애 평균(한국인 감정온도-동남아 이주민 감정온도)

통제	통합	동화	분리
2.57	4.21	7.56*	7.57*

주 1. * 0으로부터 유의미하게($p < .05$) 차이가 남

중에 상관없이 동화주의 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에 노출되었을 때는 한국인 집단과 동남아인 집단을 보다 긍정적으로 느꼈다. 이와 같이 대상이 동화주의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접한 경우에는 이주민에 대한 감정온도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감정온도도 또한 높아졌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욱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명시적 내집단 편애는 동화주의 신념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0으로부터 차이가 났다. 이에 반해 참가자들이 통합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경우에는 이주민 집단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내집단 편애는 0으로부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분리주의 신념을 보이는 대상에 노출되었을 때는 한국인 집단과 이주민 집단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커서 유의미하게 0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정도의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다.

내집단에 대비한 외집단에 대한 암묵적 편견

앞에서 제시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 인종 편견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집단에 대비한 동남아시아 이주민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실시했다. IAT 효과(D값) 점수에 대해 2대상의 인종: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X 4(대상의 문화적응 태

도: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과 통제집단) X 2(IAT 과제제시 순서: 조합과제 먼저, 비조합 과제 먼저)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했고, 사후검증으로는 LSD 다중비교를 통한 평균비교를 실시했다. 각 조건별 IAT 효과의 평균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IAT 과제제시 순서의 주효과($F(1,135)=4.77, p<.05, \eta^2=.03$)와 대상의 문화적 적응 태도의 주효과($F(3,135)=2.67, p=.05, \eta^2=.06$)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조합과제를 먼저 실시한 경우($M = .60$)에 조합과제를 먼저 실시한 경우($M = .46$)보다 암묵적 편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합신념($M = .38$)을 지지하는 대상을 접한 참가자들에 있어 통제조건의 참가자들($M = .65$)보다 더욱 암묵적 인종편견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IAT 효과는 0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컸다($t(37) \geq 6.56, p<.001$). 이러한 결과는 비록 통합신념과 태도에 접했을 때에도 내집단 편애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무런 문화적응 신념과 태도에 노출되지 않았던 통제 조건에 비해 내집단 편애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및 문화적응 신념

한국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 이주로 인한 위협감 및 문화적응 신념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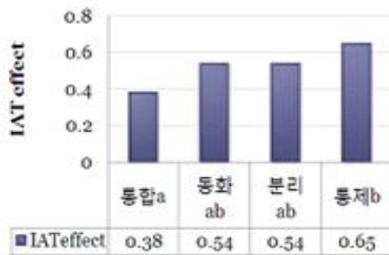


그림 4. IAT 효과에 있어서의 문화적응 태도의 주효과 (두 평균이 동일한 알파벳을 포함하면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그림 5.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의 문화적응 태도의 주효과 (두 평균이 동일한 알파벳을 포함하면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영상에서 제시된 대상의 인종과 문화적응 태도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대상의 인종: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X 4(대상의 문화적응 태도: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고(표 2),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으로 LSD를 통한 평균비교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정부의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대상 인종의 주효과($F(1,143)=3.29, p<.10, \eta^2=.02$)와 문화 적응 태도의 주효과($F(3,143)=2.12, p<.10, \eta^2=.04$) 모두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동남아시아 이주민 대상을 접한 경우($M = 4.31$)에 한국인 대상에 노출된 경우($M = 4.47$)보다 다문화정책에 덜 동의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그림 5에 나타나 있듯이, 통합신념($M = 4.54$)에 노출되었을 때, 동화주의 신념($M = 4.21$)에 노출된 경우보다 다문화정책에 더 동의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응 신념에 대한 지지정도(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및 분리주의)에 있어서는 동화주의 신념에 대한 지지정도에 있어서 대상 인종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143)=4.61, p<.05$). 다른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10$). 즉, 동남아인 대상을 접한 경우에($M=3.74$) 한국인을 접한 경우($M=3.40$)보다 참가자의 동화주의 신념 지지가 더 높아 졌다.

지각자의 내집단동일시 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인 집단에 자신을 덜 동일시하는 참가자들이 한국인 집단에 더욱 자신을 동일시하는 참가자들보다, 대상이 나타내는 통합주의 혹은 동화주의 문화적응 신념이나 태도를 접한 후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가 보다 호의적으로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대상 인종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4). 먼저, 범주변인인 문화적응태도는 통제조건을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참조코딩(reference coding)을 실시했다. 1단계에는 문화적응 태도를 참조코딩한 3가지 더미변인(D1: 분리=1, 나머지 조건=0, D2: 동화=1, 나머지 조건=0, D3: 통합=1, 나머지 조건=0)과 내집단 동일시 점수(연속변인)를 센터링(centering)하여 투입하고, 2단계에는 이들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대상 인물이 동남아 이주민이었던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영상에서 제시된 인물에 대한 인상평거나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지지와 다문화주의 신념지지에 있어 문화적응태도와 한국인 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즉,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 대상에 노출되었을 때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즉 상호작용)의 ΔR^2 가 유의미한

표 4. 다문화정책동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한국인 대상의 영상에 노출된 경우)

단계	예측변인	β	t	F	ΔR^2
1단계	D1(분리vs통제)	-.002	-.02	1.131	.062
	D2(동화vs통제)	-.12	-.84		
	D3(통합vs통제)	.08	.57		
	집단동일시	.18	1.50		
2단계	D1*집단동일시	.20	1.13	2.09 ⁺	.121 ⁺
	D2*집단동일시	-.01	-.08		
	D3*집단동일시	-.28	-1.78 ⁺		

주. ⁺ $p<.10$,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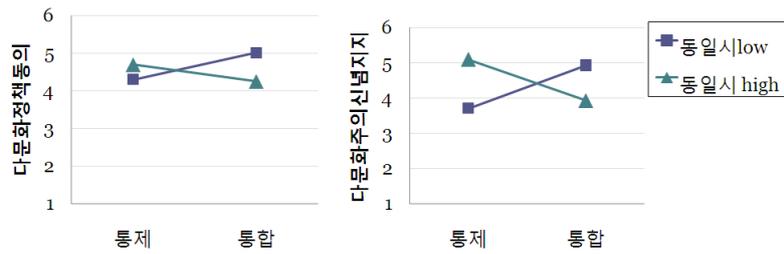


그림 6. 다문화정책동의와 다문화주의 신념지지에 있어 대상의 문화적응 태도(통합신념과 통제조건 비교)와 내집단동일시정도의 상호작용효과

경향성이 있었고, 그중 D3(통합신념을 지지하는 대상에 노출된 경우와 통제조건을 비교하는 더미)와 내집단동일시 정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다.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Aiken & West, 1991), 그림 6의 왼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이 통합을 주장하는 한국인 대상에 노출된 경우에는 통제 조건에서보다 다문화정책에 더욱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beta=.71, p=.06$),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통합을 주장하는 한국인 대상에 접한 경우 통제조건의 경우보다 다문화정책 동의정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beta=-.45, p=.06$). 다문화주의 신념지지에 있어서도 2단계의 이원상호작용의 ΔR^2 가 유의미하였으며($\Delta R^2=.17, p<.01$) 이중 D3(통합 대 통제)와 내집단동일시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beta=-.58, p<.001$). 또한 그림 6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듯이 다문화주의 신념 지지에 대해서도 다문화정책 지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집단에 자신을 덜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더욱 동일시하는 사람들보다 이주민들과 한국 사람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접한 후 더욱 다문화주의 신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을 더욱 지지하게 됨을 보여 준다. 이는 가설 4-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동남아 이주민과 한국인이 나타내는 문화적응 신념, 태도 및 행동이 대상에 대한 인상 평가와 인종 집단 일반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대상(동남아시아인 혹은 한국인)이 나타내는 일상에서의 친구 관계, 종교, 언어 사용 등 문화적응 신념 등에 대한 기술을 각 장면에서의 대상의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제시한 다음 태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한국인 지각자가 접하는 문화적응 신념과 태도가 무엇이나에 따라 대상 개인과 인종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우선, 대상이 통합 태도 혹은 다문화주의 신념을 나타내 보일 때 다른 신념과 태도의 경우에 비해 대상(이주민과 한국인 대상 둘다)에 대한 지각자의 평가가 보다 좋았고,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동남아시아인 집단 혹은 한국인 집단 모두에 대해 지각자가 더욱 호의적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며, 또한 암묵적 내집단 편애도 가장 낮아 졌고, 아울러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을 더욱 지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관된 결과로, 한국인이나 이주민 모두 한국의 문화와 동남아시아인의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수용·통합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보다 호의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인종 집단

에 대한 평가도 보다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자아내었다.

이와는 달리 대상이 동화주의 태도, 신념 및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상이 동남아 이주민이나 혹은 한국인이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참가자의 인상 평가가 달라졌다. 즉, 지각자는 동화주의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분리주의 태도나 통제 조건에서와 비교할 때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동화주의 태도를 나타내는 동남아 이주민 개인에 대해서는 통합이나 통제 조건에 비해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Van Oudenhoven 등(1998)의 연구에서 네덜란드 주류집단 실험참여자의 경우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는 이주민 개인에 대한 인상평가가 통합신념을 지지하는 경우만큼 호의적이었다는 결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류 집단 구성원들은 대체로 동화주의를 좋아하였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1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참가자들은 특히 동남아 이주민이 자신의 원래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에 동조하고 동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를 그다지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가지 가능성은 대학생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에만 동조하겠다는 이주민을 일종의 배신자로 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Crisp와 Hewstone(2007)이 지적했듯이 주류 집단 사람들은 외집단과 내집단을 한 집단으로 재범주화하거나 외집단이 내집단에 동화되고자 하는 시도에 접할 때 집단의 독특성(distinctiveness)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한 정체성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동화주의 태도를 보이는 대상을 접하는 것은 동남아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켰는데, 개인에 대한 태도와 달리 동남아 이주민 집단에 대해서는 동화주의 조건에서 통

합신념 조건과 유사한 정도로 그 태도가 호의적으로 되었고, 분리주의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상의 동화주의 신념과 태도를 접한 경우에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온도도 또한 높아져서 동화주의 신념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가장 높은 한국인 감정온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명시적 내집단 편애는 동화주의 신념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0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정도로 높아 졌고, 이에 반해 통합 조건에서는 내집단 편애 점수가 0으로부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한국인들의 내집단 편애는 동화주의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대상을 접했을 때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동화주의 신념에의 노출의 결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였지만 Verkuyten(2005)의 연구에서 주류 집단 구성원이 동화주의를 지지할수록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가 덜 호의적이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김혜숙 등(2011)의 조사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높아졌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이 동화주의 신념 및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그는 주류 집단 지각자에게 별로 호의적으로 지각되지 않아 이주민 개인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동시에 주류 집단의 내집단 편애 혹은 우월주의를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켜 이주민과 주류 집단간의 관계 개선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관련 정책이 아직도 이주민의 동화주의 태도와 행동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는 실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예상대로, 한국인과 이주민이 각자 따로따로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분리주의 태도와 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을 접하는 것은,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대상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인종집단에 대한 평가도 가장 비호의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 경우 한국인의 명시적 내집단 편애도 가장 높아 졌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내집단 동일시의 정도에 따라, 대상의 문화적응 태도에 접하는 경험이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각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지각자에 있어서는 통합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한국인 대상을 접한 후 통제 조건에서와 비교하여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지만, 내집단 동일시가 높은 사람에 있어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의 내집단 동일시의 효과가 통합신념에의 노출이 다문화주의 신념을 지지하도록 하는 효과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risp와 Hewstone(2007)이 제안한대로, 내집단 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주민 외집단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서로 통합을 추구하는 시도는 고유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위협감을 불러 일으켜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주류 집단이 자신의 고유 문화와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정체성도 통합하여 가지는 이중정체성(Dovidio & Gaertner, 2010; Gonzalez & Brown, 2005) 혹은 다중정체성을 가지도록 구성원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폐쇄적이고 감정적인 국수주의적 태도는 지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아동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더 나아가서 세계인으로서의 확장된 정체성을 가지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통제조건의 이주민 대상을 한국인 대상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통제 조건에서는 대상의 문화적응 신념을 제공하지 않고 사진 정보, 직업 정보와 출신국가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대학생 참가자들의 한국인 염색공장 직원에 대한 편견, 즉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학생 55명(남

성: 26명, 여성: 29명)을 대상으로 대상의 직업을 다르게 제시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에 대해 2(대상의 인종: 동남아시아인, 한국인) X 3(대상의 직업: 대학생, 노동자, 직업제시하지 않음)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 인종의 주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49) = 27.55, 24.84, p < .001$). 즉, 대상의 직업에 상관없이 동남아시아 이주민 대상을 한국인 대상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통제조건에서 참가자들이 동남아시아 이주민 대상을 한국인 대상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상의 직업에 따른 참가자들의 인식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조건과 추가설문에서 공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이주민 대상의 얼굴에 대한 매력도 지각에 있어 한국인 대상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얼굴에 대한 호감도 인식 차이가 전반적인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나 대상이 속한 인종집단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든 결과에서 얼굴 매력도 평균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얼굴 매력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모든 결과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 조건에서 이주민 대상을 한국인 대상에 대해서보다 높게 평가한 결과는 직업의 영향이나 매력도 지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편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고 또한 자신은 편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이주민을 더욱 높여 평가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이 아무런 영상 자료를 접하지 않았던 통제 조건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탈편견 규범에 의거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통제조건에서는 명시적 내집단 편애도 통합조건에서만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암묵적

내집단 편애는 통제 조건에서 가장 높았고 통합 조건에서는 통제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본 연구 방법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위에서 언급한 내집단동일시 측정을 대상의 행동을 접한 후에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집단동일시 점수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내집단 동일시 점수에 대해 대상과 문화적응태도유형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은 감소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속 연구에서는 조건 조작을 하기 전에 내집단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여 그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문화적응 태도나 신념을 접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인상 평가나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김혜숙 등(2011)의 연구나 Verkuyten(200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 신념에 동의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낮아지고 동화주의 신념을 지지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문화적응 태도를 접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응 신념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념의 변화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태도의 변화를 매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편견 연구들은 외집단과 접촉하는 것이 집단간 불안을 낮춤으로써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거나(Dijker, 1987; Islam & Hewstone, 1993; Stephan & Stephan, 1985) 혹은 정체성 위협이나 실질적 위협(Stephan & Stephan, 2001)을 변화시켜 집단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즉, 이주민이 통합적 문화적응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각하면 집단간 불안이 감소한다거나 혹은 동화주의적 태도에 접하면 정체성 위협을 느

끼게 됨으로써 인종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혹은 다양한 문화적응 태도를 보이는 이주민을 접할 때 자신과의 유사성을 다르게 지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 간의 인간관계나 집단 관계는 일방적으로 다수 집단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고, 소수집단 혹은 이주민이 주류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이주민 혹은 다수집단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적응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접할 때 대상 개인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집단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내집단 편애 경향성이 달라지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사회의 동남아 이주민이 다양한 문화적응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주민의 정체성이나 적응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숙, 안운정, 송혜령 (2010).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5(2), 235-258.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숙 (1994). 한국집단자아존중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 121-143.
- 김혜숙, 김도영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0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록집.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나은경,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 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 대학생과 국내 체류 외국대학생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교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교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 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설동훈 (1992). 국제노동력 이동과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7, 231-325.
- 설동훈 (1998).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희천, 최진아 (2010). 도시지역 다문화 가정의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2010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록집.
- 안지혜, 강승혜 (2009). 초등학교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초등기초연구, 22(4), 227-254.
-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05).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3(3): 237-256.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59-79.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 101-136.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황지현, 김돈진, 김혜숙 (2009).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를 지지하는 설득메시지가 동남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09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록집.
- 황지현,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김혜숙 (2012).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평가자 집단 유형이 동남아시아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123-150.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ry, J. W.(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15-631.
- Berry, J. W. (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Acculturation*, ed. G.Marin, P. Balls-Organista, and K. Chung. Washington, APA Books.
- Berry, J. W. (2006). Mutual attitudes among immigrants and ethnocultural group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 719-734.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ourhis, R. Y., Moris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369-386.
- Crisp, R. J., & Hewstone, M.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163-254. Orlando, FL: Academic Press.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 296-330.
- Dovidio, J. F. & Gaertner, S. L. (2010). A Common Ingroup Identity: A categorization-based approach for reducing intergroup bias. In T. Nelson (Ed.), *Handbook of prejudice*. (pp.489-506). Philadelphia, PA: Taylor & Francis.
- Fazio & Olson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 Gonzalez, R., & Brown, R. (2003). Generalization of positive attitude as a function of subgroup and superordinate group identifications in intergroup conta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95-214.
- Gonzalez, R., & Brown, R. (2006). Dual identities in intergroup contact: Group status and size moderate the generalization of positive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753-767.
- Haddock, G., & Zanna, M. P. & Esses, V. 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 Hornsey, M. J., & Hogg, M. A. (2001). Subgroup relations: a comparison of mutual intergroup differentiation and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s of prejudice redu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6, 242-256.
- Hwang, J. H, Kim, D. J., Kim, H. S. (2009). The effect of a persuasive message endorsing the multiculturalism or assimilationism ideologies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toward the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Korea,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coping and appraisal. New York: Springer
- Maisonneuve & Teste (2007). Acculturation preferences of a host community: The effects of immigrant acculturation strategies on evaluations and impression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669-688.
- Navas, M., Garcia, M. C., Sanchez, J., Rojas, A. J., Pumares, P., Rernadez, J. S. (2005). Relative Acculturation Extended Model(RAEM): New contributions with regard to the study of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21-37
- Oakes, P. J., Haslam, S. J., & Turner, J. C. (Eds.).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Oxford: Blackwell.
- Piontkowski, U., Rohman, A., & Florack, A. (2002). Concordance of acculturation attitudes and

- perceived threa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5(3), 221-232.
-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 Simon B. & Ruhs D. (2008) Identity and Politicization Among Turkish Migrants in Germany: The Role of Du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5, No. 6, 1354-1366
- Stephan, W. G & Stephan, C. (1985).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41, 157-176.
- Stephan, W. G., & Stephan, C. W. (2001).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Stephan, W. G., Stephan, C. W., & Gudykunst, W. B. (1999). Anxiety in intergroup relations: A comparison of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and integrated threa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 613-628.
- Stephan, W., Diaz-Loving, R., & Duran, A. (2000). Integrated threat theory and intercultural attitudes: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240-249.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Van Oudenhoven, J. P., Prins, K. S., & Buunk, B. P. (1998). Attitudes of minority and majority members towards adaptation of immigra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995-1013.
- Van Oudenhoven, J. P., Ward, C., & Masgoret, A. M. (2006). Patterns of relations between immigrants and host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637-651.
- Verkuyten, M. (2005). Ethnic group identification and group evaluation among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Testing the multicultural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21-138.
- Verkuyten, M. (2010). Assimilation ideology and situational well-being among ethnic minority me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269-275.
- Voci, A., & Hewstone, M. (2003).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in Italy: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and the moderational role of group salience.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6, 37-54.
- Ward, C., Bochner, S., and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tledge.
- Wolsko, C.,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2000). Framing interethnic ideology: Effects of multicultural and color-blind perspectives on judgments of groups an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635-654

1 차원고접수 : 2013. 07. 18.

수정원고접수 : 2013. 08. 22.

최종게재결정 : 2013. 08. 22.

The Effect of the Exposure to the Various Acculturation Beliefs and Attitudes in Everyday-Life Situations on the Attitudes Toward the Target and the Racial Groups

Don-Jin Kim

ORP Institute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evaluated the racial groups(i.e., Southeast Asian migrants vs. Koreans) in general as well as the target person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target who demonstrated one of the various acculturation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 More specifically, we presented the participants with video clips in which either a Korean or a Southeast Asian migrant target demonstrated one of the four types of the acculturation beliefs and attitudes in various everyday-life situations (i.e., separation, assimilation, integration or the control condition), and measures both the implicit as well as the explicit racial attitudes. The results of the ANOVAs demonstrated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target who demonstrated the integrated beliefs and attitudes than the target demonstrating separated beliefs, regardless of the race of the target.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integrated target elicited more favorable implicit as well as explicit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groups in general than the separated target. The evaluation of the target who showed assimilated acculturation beliefs and attitudes differed in terms of the race of the target: The Korean target who showed assimilated beliefs and attitudes was evaluated more favorably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while the Southeast migrant target showing the same attitudes was evaluated less favorably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However, regardless of the race of the target person, the explicit ingroup favoritism of the participants increased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assimilated beliefs and attitudes. Finally, only for those who were less identified as Koreans supported the multiculturalism policies of the government more when they were exposed to the integrated target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 words : acculturation beliefs, impression evaluation, racial attitudes, ingroup identification